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박차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인허가 사전 협의 완료

전북도가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2.4GW 조성에 어려움이 있었던 국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와의 인허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세부 조율 작업에 착수한다.

먼저 군 작전성 협의와 관련, 해상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추세로 군 안보에 대한 영향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북도는 올해초까지 군 전파영향평가 연구용역(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수행해 전파차폐 등 군 작전성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용역을 통해 제시된 해소방안을 토대로 국방부-예하부대(7개)와 협의를 진행한 결과 2023년 11월에 사전 협의(조건부 동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국방부-예하부대 의견 등을 수렴해 합의서 체결 후 해소방안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비롯해 명시된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 향후 발전사업자의 공유수면허가 전까지 최종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는 국방부-예하부대에서 우려하고 있는 군 작전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여러 차례 용역사와 동행해 해당부대를 직접 방문해 설명하고 협의사항 조율·보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도출된 성과로써, 이번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조건부 동의 해역에 대한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상호 간 미합의된 해역에 대하여는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향후 인허가 단계에서의 국방부(예하부대)-발전사업자 간의 최종 협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선정된 발전사업자인 한국전력, 한국해상풍력과 협력해 인허가 관련 협의사항을 단계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선정 예정인 발전사업자 민간공모 시에도 국방부-예하부대에서 제시한 조건부동의 사항을 공모 이행조건으로 명시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외, 해수부와의 해상교통안전진단 협의는 2021년 5월부터 수행한 연구용역(목포해양대학교)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타 인허가와의 저촉 여부 등을 반영하여 올해 안에 최종 허가서를 발급받을 계획이다.

그리고 내년까지 확산단지 1.2GW에 대한 단지배치 설계, 지반 및 해역조사, 풍황계측기 설치 및 분석 등을 적기 진행하고, 전력계통의 연계를 위한 경과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건설시기에 맞춰 추진될 수 있도록 한전과 협력 대응할 예정이다.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은 "금번 협의 결과는 그간 발전사업자-관계부처와의 인허가 협의가 어려움을 고려해 공공주도로 협의를 추진한 첫 사례로써, 향후 해상풍력 연관기업들의 인허가 단계에서의 부담요소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와 더불어 배후항만 조성 등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해 전라북도가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지역민 고용 확대 · 경제 활성화 기여

정승관 친한 F&B · 미드밀 대표 도지사 표창 수상

임실N치즈를 이용한 식육가공 전문기업인 ㈜친한F&B, (주)미드밀(대표 정승관)이 지난 1일 더메이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전북 중소 벤처기업인의 날'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라북도지사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도가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발전협의회, (재)전북테크노파크, (사)벤처기업협회전북지부, 한국여성벤처협회전북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 중소·벤처 기업인들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전북지역 중소·벤처 기업의 성과 공유 및 성장 촉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북지역 중소·벤처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친한F&B, (주)미드밀 정승관 대표는 식육가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전문기업인이다.

'2019 IFFA 독일 식육가공박람회'에서 아시아 최다 메달(17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임실N치즈 소시지·함박스테이크, 닭가슴살 제품 등을 생산하며 임실N치즈를 비롯 지역농산물 사용과 지역민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임실군 오수 제2농공단지에 ㈜미드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 ㈜친한F&B 제3공장은 투자협약 등 검토 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관 대표는 "(주)친한F&B에서 개발한 제품들을 (주)미드밀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제품들을 믿고 먹을 수 있게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기자

고창 서해안복분자주 호주 시드니에 8만불 수출

고창 복분자주가 호주 대륙에 보랏빛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고창군(군수 심덕섭)은 지난 4일 관내 복분자주 제조업체인 서해안 복분자주(대표 송지훈)가 호주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작업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품목은 고창서해안복분자주(대표 송지훈) '선운(도수 15%, 375ml)'으로 최상급 고창산 복분자에 원적외선과 바이오성분이 함유된 황토 토굴에서 빚어낸 술로, 2003년 대통령하사주, 2005년 APEC 공식만찬주, 2017년 청와대 만찬행사 건배주 등으로 사용돼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이번 물량은 8만달러분(1억원 상당)이 선적됐으며, 호주 시드니 현지마트 및 외식업체 등에 유통될 예정이다.

송지훈 대표는 "2018년도부터 호주로 복분자주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고창 복분자주의 세계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대표특산품인 복분자주의 호주 수출을 축하드리며, 고창 복분자주의 안정적인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북도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2000만원 상당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는 세밑을 앞두고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6일 김관영 도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회장 소재철)는 세밑을 앞두고 지역의 취약계층과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6일 전북도청을 방문 김관영 도지사에게 이웃돕기 성금 2천만원을 전달하였다.

소재철 회장은 "연말을 맞아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고자 회원들의 사랑이 담은 성금을 전달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계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건설업계도 어려운 상황인데 매년 소외된 이웃을 잊지 않고 성금을 기탁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며, 사회전반에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모아 불우한 이웃들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날 전달된 기부금을 포함하면 총 기부 누적액은 4억 6,500만원이 된다.

/김옥기 기자

장심도 지하투과레이더 도입

농어촌공 전북본부, 농업기반시설물 안전 확보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는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심도 지하투과레이더(GPR)와 열화상 드론을 도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정문)는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목표로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장심도 지하투과레이더(GPR)와 열화상 드론을 도입했다.

이번에 도입된 장심도 지하투과레이더는 저주파를 사용하여 땅속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장비이며, 기존 장비에 비해 투과력이 향상되어 저수지 제방(둑) 심부까지 균열 및 누수로 인한 포화대 구조 조사가 가능하다.

열화상 드론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해 노후로 인해 저수지 제방 외관부에서 누수가 발생되고 있을시 누수 영역와 그렇지 않은 제방과의 주변 온도차를 활용해 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공중에서 조사할 수 있다.

열화상 드론으로 제방 전구간에 대해 누수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장심도 지하투과레이더로 땅속 깊숙이 형성된 포화대를 조사할 수 있어 제방에 손상을 주지않으면서 보다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김옥기 기자

LH 전북지사, '안전일터 조성의 날' 현장점검 실시

LH전북지사(지사장 윤우준)는 6일 전북권역 LH건설현장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의 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김제지평선 LH임대주택 건설현장에서 진행하였으며, LH, 시공사 및 현장근로자를 포함한 20여명이 참여했으며, 동절기 안전사고 발생을 대비해 고위험작업 위험성평가, 작업전안전회의(TBM) 이행실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가시설물의 결속상태, 밀폐작업공간 환기 관리 등 일체를 점검하였고, 특히 화재 취약 요인 제거 및 혹한기 대비 근로자 복지시설의 점검을 지도했다.

윤우준 지사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전북권역 LH 건설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고 겨울철 폭설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